



시험을 보면 늘 30점, 32점을 맞는 꼬마가 있습니다. 녀석이 어느 날 중간고사 성적표를 들고 신나게 뛰어왔어요. 혹시나 하며 성적표를 펼쳐보던 엄마는 역시나 하고 화를 냅니다.

“27점밖에 안 되면서 왜 어젠 50점 넘었다고 그랬니? 바로 들통날 걸 누가 거짓말을 하래!” 성적표를 들고 뺨잔말로 아이를 다그치는 엄마. 아이는 엄마에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잘 접어둔 성적표를 펴보며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 이상하다. 어젠 분명히 52점이었어요. 사실은 문제를 다 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시간 다 됐다고 해서 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창문으로 봉어가 나타나 답을 다 써줬어요. 어제 매겨본 점수는 정말 52점이었어요. 정말이러니까요 엄마.”

공부는 남보다 뒤쳐지지만 지금껏 그럴싸한 거짓말 한번 못해 본 이 여덟 살 순진한 꼬마의 말을 믿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존 버닝햄의 그림책에서 이런 해프닝은 다반사입니다. 어른들이 들으면 분명 허무맹랑한 거짓말, 변명처럼 들릴 애긴데 아이들은 이 일들을 현실이라 말하지요.

대표작 《지각대장 존》을 펼쳐봅니다. 어른들이 직시하는 현실과 아이들이 경험하는 환상세계를 잘 뒤섞어 놓은 책이지요. 지각을 일삼는 존. 선생님은 왜 매일 지각을 하느냐며 아이를 다그치지만 존에게는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등골길에 생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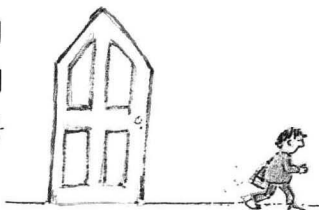
< 상상의 세계 들어가면 우리 어릴적 ‘얼굴’ 보여 >

도 못한 훼방꾼들이 나타나거든요. 악어와 사자가 나타나 물건을 뺏고 바지를 물어뜯다 못해 어느 날에는 홍수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다 젖은 옷으로 학교에 온 존을 보면서 선생님도 거짓말한다며 벌을 주지요.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으니 아이도 상처를 받으나 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존처럼 커다란 털복숭이 고릴라에게 붙잡히지만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절대 믿어주지 않지요. 책표지 바로 뒷부분에는 재밌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악어가 나온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는 장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도 아이는 자신이 상상하는 특별한 상황들을 매번 다르게 대입해 봅니다.

상상은 곧 욕망입니다. 그림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존이 얼마나 학교에 가기 싫은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학교 가는 길은 어둡고 한없이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으며 예상치 못한 훼방꾼들까지 나타나 존을 힘들게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겐 힘겹고 가기 싫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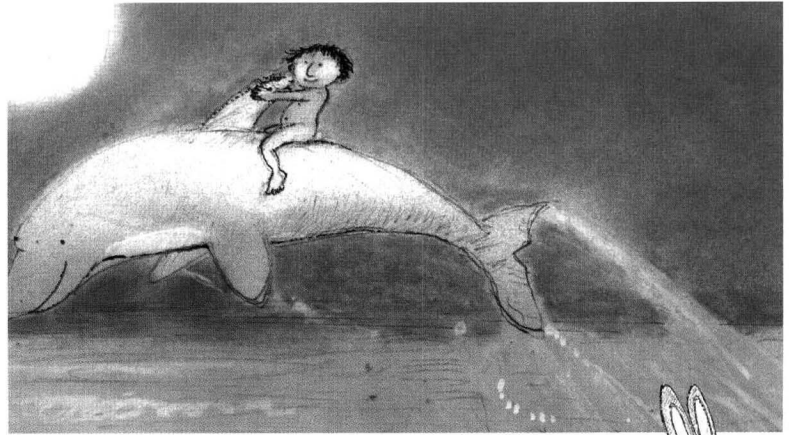
《지각대장 존》의 존은 존 버닝햄의 실제 어린 시절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1936년 영국에서 태어난 존 버닝햄은 규격화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였지요.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섬머힐 스쿨에 다녔고, 군대에 가기 싫어 이스라엘에서 산림 감시원,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사회부적응자, 이웃사이더나 다름없는 청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만든 그림책이 1963년에 덜컥 케이트 그린어 웨이상을 받게 되지요. 그때부터 존은 그림책 작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후 《장바구니》 《사계절》 《내 친구 커트니》 등 다수의 그림책을 내놓고 찰스 키팅,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와 함께 영국의 3대 그림책 작가로 손꼽힐 만큼 명성을 쌓습니다. 헬렌 옥스 버



리라는 그림책 작가가 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버닝햄이 그려낸 아이들은 어른들이 중요시 하는 현실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환상세계를 만들어 봅니다. 《알도》를 펼쳐볼까요. 다투는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지요. 그러나 아이는 슬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토끼 친구 알도가 있거든요. 그네를 밀어주고, 책도 읽어주는 알도는 주인공이 원할 때마다 나타나, 주인공에게만 보이는 특별한 친구입니다. 이 책은 부모의 화해로 결말을 짓는 정형화된 그림책 형식을 거부합니다. 행여 가상의 실체인 인형과 놀다 자폐적 성향만 키우게 될 것을 우려하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존 버닝햄은 흔한 인형 하나가 아이들에겐 부모보다도 더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존 버닝햄의 그림책에서 누가 옳은지, 누가 본 게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보려고 하는 것, 상상하려 하는 것 이면에 숨겨진 마음들을 어른들도 믿고,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지요. 지각을 일삼는 존, 인형과 대화하는 꼬마. 존 버닝햄의 아이들을 보면 두려운 것 많고, 갖고 싶은 것 많고, 가기 싫은 곳도 많아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하던 우리의 어린 시절 '얼굴'이 보입니다. **추천** 김청연 기자



존 버닝햄의 책

《알도》 존버닝햄 지음 | 이주령 옮김 | 시공주니어 | 32쪽 | 값 7,500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외로운 주인공. 텔레비전도 보고 장난감도 갖고 놀아보지만 쓸쓸함을 달랠 길이 없다. 그런 아이 곁에 토끼 인형 알도가 있다. 알도는 아이와 대화하고 그네도 밀어주고 책도 읽어준다. 외로우면서도 슬프지 않다고 말하는 아이의 모습이 안타깝게 그려져 있다.

《장바구니》 존버닝햄 지음 | 김원석 옮김 | 보림 | 30쪽 | 값 7,000원

장바구니를 들고 엄마 심부름을 하러 나간 스티븐 이야기. 달걀 여섯 개, 바나나 다섯 개, 사과 네 개, 오렌지 세 개, 도넛 두 개, 과자 한 봉지를 사러 나갔다가 다양한 사건을 겪는 이야기다. 문자 언어와 수리언어를 통합적으로 익혀보는 기회도 선사하는 책이다.

《지각대장 존》 존버닝햄 지음 | 박상희 옮김 | 비룡소 | 30쪽 | 값 7,500원

상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재미있게 뒤섞인 그림책. 등교시간마다 이상한 뽀방꾼들을 만나는 존을 보고 있으면 학교나 학원에 가기 싫어 피를 부리곤 하는 우리네 아이들 모습이 떠오른다. 우격다짐형으로 아이들 말을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 즉 어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한다.

《마법침대》 존버닝햄 지음 | 이상희 옮김 | 시공주니어 | 44쪽 | 값 8,500원

중고가구점에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마법 침대'를 발견한 조지. 마침내 침대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된 조지는 난쟁이들과 요정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빗자루를 탄 마녀들과 날기 시합을 하는 등 온갖 신기한 일들을 경험한다. 침대 하나만으로도 온갖 상상을 다해 보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물씬 풍기는 이야기.

《뒤라고?》 존버닝햄 지음 | 고승희 옮김 | 문진미디어 | 46쪽 | 값 8,000원

망가진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나는 아이들 이야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받은 어른들은 부자, 성직자 할 것 없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화합을 시도해 본다. 그림책을 통해 어른들에게 경고장을 내미는 존 버닝햄의 재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